

산업자원부 보도자료

<http://www.mocie.go.kr>

2006년 11월 29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자원개발총괄팀 권평오 팀장, 송현주 사무관 (02-2110-5434)

1호 '유전개발펀드' 오는 29일 출시

2000억규모... 2013년 석유·가스자주개발을 목표로 18% 상회 20%이름듯

-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고, 그 수익을 배분하는 유전개발펀드가 29일 첫선을 보이면서, 30일까지 이틀간 투자자 모집을 위한 공모에 들어감
 - 27일 산자부 등에 따르면 현재 석유공사가 14.25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15-1 유전의 수익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2,000억원 규모의 유전개발 1호펀드가 29일 출시에 들어가며,
 - 투자자는 15-1광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받고, 석유공사는 판매회사로부터 펀드 모집액을 양도받아 신규 유전개발사업에 투자하게 됨
- 유전개발 1호펀드 출시와 관련,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유전개발 펀드는 세계 각지에서 석유메이저들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 자원개발기업에게 재원조달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,
 - 금번 출시되는 1호펀드 외에도 현재 여러 기업에서 후속 펀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, 향후 유전개발펀드가 자원개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,

- 주무장관으로서 유전개발펀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9일 1호펀드에 일정금액을 청약할 계획이라고 밝힘

< 유전개발 1호펀드 개요 >

- ① 명칭 : 한국 베트남 15-1 유전개발펀드
- ② 모집규모 : 2,000억원
- ③ 기초자산 : 베트남 15-1광구 수투덴小區 남서부지역 수익권
- ④ 세제혜택 (조특법,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중)

【소득세】

- '08년까지 : 3억원까지 비과세*, 3억원 초과분 14% 분리과세
- '09 -'11년까지 : 3억원까지 5%, 3억원 초과분 14% 분리과세

【등록세】 : '09년까지 펀드 등록세 50% 경감

- ⑤ 존속기간 : 5년 만기
- ⑥ 판매계획 : 기관對 개인을 40:60의 비율로 공모
 - '06.11.29(수)~30(목) 양일간 삼성증권·대신증권·한국투자증권·굿모닝신한증권·기업은행에서 판매 (최소 청약금액 100만원)
 -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므로 주식형태로 매매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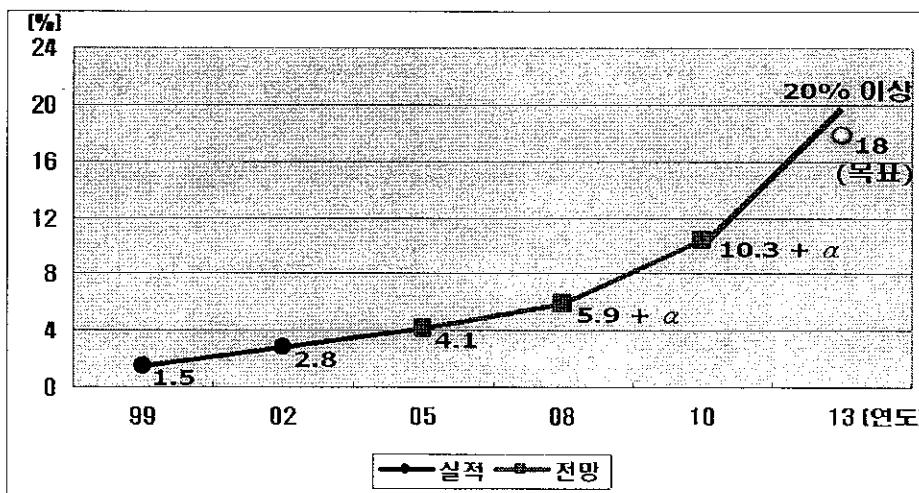
□ 한편, 丁장관은 광권획득에서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 기술과 자본으로 이루어낸 베트남 11-2 가스전의 준공식에 다녀온 감회를 피력하면서,

-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적극적인 자원외교 등을 통하여 88억배럴의 석유·가스 매장량(추정)을 확보함에 따라 현재 확보된 석유·가스매장량이 총 140억 배럴에 달하며,

○ 이러한 유전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현재 4%에 불과한 우리의 석유·가스 자주개발률이 2013년경에는 당초목표였던 18%를 훨씬 상회, 20%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힘

- 2010년까지 베트남 11-2광구 및 페루 카미세아/56광구의 증산 등으로 자주개발률 6.2%p 상승 예상
- '11-'13년중 러시아 서캅차카, 나이지리아 해상광구 등 대형광구의 생산이 이뤄지면 추가로 13.4%p 상승 예상

원유·가스 자주개발률 전망



<연도>	<광구명 및 매장량>	<자주개발량>	<자주개발율>
2007	베트남 11-2	6.8백만b 생산	0.5%p
2008	페루 카미세아·56광구	6.1백만b 증산	0.6%p
	브라질 BMC-8	3.7백만b 생산	0.3%p
2009	베트남 15-1	5백만b 증산	0.5%p
	예멘 LNG	17백만b 생산	1.5%p
2010	미얀마 A-1·A-3	27백만b 생산	2.4%p
	페루 LNG	4.4백만b 생산	0.4%p
2011	러시아 서캅차카(15억b)	75백만b	6.5%p
2012	카자흐 잠빌(4.5억b)	23백만b	1.9%p
2013	나이지리아(12억b)	60백만b	5.0%p

* 기타 : 러시아(육상광구), 카자흐(ADA) 브라질(BMC-30·32), 예멘(16, 39, 70) 등

<참고> 해외자원개발 추진현황 및 성과

< 참고 > 해외자원개발 추진 현황 및 성과

1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 :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

□ 에너지 자주개발의 확대는 수입의존도 완화, 간접적인 수입선 다변화 및 비축효과 등 에너지 안보에 결정적으로 기여

① 에너지 공급위기시 자주개발 물량의 국내 우선반입* 또는 타 유전과의 swap 등을 통해 에너지 위기상황 타개가 가능

*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7조(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)에 근거 산자부장관 명령에 따라 자주개발 원유의 도입 강제가 가능

② 지역적 편재성(전세계 매장량의 62%가 정치적으로 불안한 중동에 집중)이라는 석유 특성을 감안하여 脫 중동지역(아프리카, 동남아, CIS 등)에서 유전개발을 통해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

□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경제·산업적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 가능

① 자주개발물량 도입시 생산원가 반입이 가능해 유가상승시 국민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, 원유 및 원자재 가격상승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우리경제에 cash-cow로서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제공

② 해외자원개발 산업육성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 및 연관산업(플랜트 설비, 에너지 인프라 동반진출)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

2 자원개발 목표

□ 에너지·자원의 국내 소비량의 1/3 수준을 자주개발로 충당 ⇒ 에너지자립사회

- 다양한 국제협력활동을 전개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여 에너지빈국에서 경제적 개념의 에너지부국으로 발돋움

주요국가	미국	일본	프랑스	독일	한국	
					'05	'30
석유·가스 자주개발율('04)	38%	9.8%	93%	11%	4.1%	35%±a

※ IEA자료(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02-2003, 2005년 발행)

□ 제1차 국가에너지 자문회의('04.11)에서 中長期 자주개발을 목표를 제시

- 석유·가스의 경우 '13년 자주개발률 18%를 목표로 설정하여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추진

구 분	'05년 실적	'08년	'13년
· 자주개발량(A)	42.1백만배럴	110백만배럴	218백만배럴
· 연간수입량(B)	1,033백만배럴	1,097백만배럴	1,211만배럴
· 자주개발율(A/B)	4.1%	10%	18%

3 참여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성과

1 자원부국과의 전략적 자원외교를 본격 전개

□ 참여정부 출범후 총 17개국 대상('06년 6개국)으로 정상 자원외교 전개 하여 대형 프로젝트 성사를 통해 우리의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 확보의 계기를 마련

< 자원외교 주요성과 >

국가명	성과사업
러 시 아	- 서캄차카 유전개발 지분매매계약 체결('05.12월) [지분감안시 15억배럴 확보] - Tigil/Icha 유전개발 본계약 체결('05.12월) 및 탐사중 [지분감안시 14억배럴 확보] - 한·러 가스협정 체결('06.11월)
카자흐스탄	- 잠빌광구 공동개발 합의의정서 체결('06.9월) [지분감안시 4.5억배럴 확보]
나이지리아	- OPL 2개 광구 생산물분배계약 체결('06.3월)[지분감안시 12억배럴 확보] - 가스발전소 건설을 통해 33억불 규모의 플랜트 수출효과
우즈베크	- 이랄해 가스전 생산물분배계약 체결('06.8월) [지분감안시 3억배럴 확보]
아제르바이잔	- Inam 광구 지분참여 독점합상권 확보('06.5월) [지분감안시 최대 4억배럴 확보기대]
베트남	- 11-2광구 생산시설 준공('06.11월) 및 생산개시
몽골	- 에르데넛 동광 정밀탐사중 ['09년부터 연 3만톤 생산]

- 참여정부 기간중 88억배럴을 추가 확보하여 석유·가스 확보매장량(추정)이 140억배럴로 대폭 확대
- 신흥 유망국가와의 자원협력채널을 확대하고, 주요국가와는 자원협력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협력 확대
 - '06년 나이지리아, 아제르바이잔 등 5개국과 신규설치하여 총 24개 국가와 자원협력 채널 확보
 - * 자원협력 대상 24개 국가는 전세계 석유매장량의 44.5%를 보유
 - '06년 18개국과 자원협력위 개최 (가개최 15개국, 12월중 3개국 개최예정)

② 자주개발 역량 확충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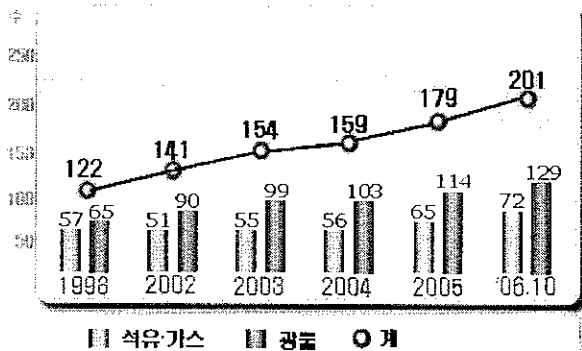
□ 해외자원개발의 인프라 강화로 자주개발 역량의 도약기반 마련

- 해외자원개발 용자예산의 확대('06) 2,690억원→('07안) 4,259억원 및 유전개발펀드의 도입('06.11.29일 1호펀드 출시예정)으로 투자재원 확충
- 자원개발 아카데미('06.9월)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
-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유공사 혁신방안 수립 ('05.9월 제3차 에너지자문회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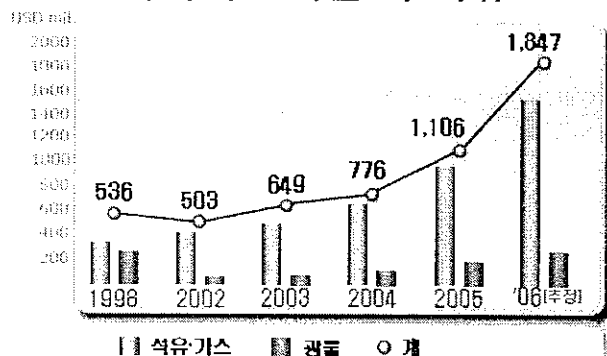
□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고, 질적으로 심화

- 사업수가 사상 최초로 200개를 돌파('06.10월 현재 201개)하고, 투자액도 '05년에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('05년 11.1억불)

<해외자원개발 사업수>



<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>



- 대형 프로젝트 증가 및 운영권 획득 사업수가 증가('02) 17개 → ('06.10월) 29개

- * 1억배럴 규모의 소형광구에서 10억배럴 이상의 대형광구 획득이 증가
 - ①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(10억배럴), ② 러시아 서캄차카 해상광구(37억배럴), ③ 나이지리아 OPL광구(20억배럴), ④ 아제르바이잔 이남광구(20억배럴), ⑤ 우즈베크 아랄해 가스전(14억배럴), ⑥ 러시아 Tigil/Icha (28억배럴)
- * 세계 3대 니켈광산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참여

- 독자 기술 및 자본으로 탐사/개발/생산에 성공한 사업이 배출되기 시작('06.11월부터 베트남 11-2광구 가스 생산 개시)

③ 한국형 자원개발 모델 구축

- 해외자원개발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원개발 모델 (에너지인프라 지원+에너지·자원 확보)을 구축함으로써 해외자원 개발의 전기를 개척

< 한국형 자원개발 모델의 성공사례 >

구분	주요내용	비고
나이지리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력사정이 열악한 나이지리아에 발전사업 진출을 연계하여 20억배럴 규모의 해상광구 (OPL 321/323)를 확보('06.3월) ○ 철도 현대화를 추진하는 나이지리아에 100억불 규모의 철도사업을 연계하여 생산 유전 지분 확보('06.11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한국형 해외 자원개발 모델”의 최초 성공사례 ○ 한국형 모델의 대형 성공사례
몽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오유틀고이 銅 광산 개발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, 同 광산 지분을 확보 합의('06.5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광물분야 첫 사례